

獨逸統一과 林業

鄭 茂 婁 / 韓獨山林事業機構

1. 머리말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東獨이 西獨에 吸收 됨으로서 獨逸은 統一되었다. 환언하면, 東獨政府가 解體되고 대신 東獨地域에 전에는 없었던 5개의 州가 新設되어 이 州가 西獨政府에 編入된 것이다.

이에 따라 林業도 中央執權的인 林業行政에서 州 林業行政으로 轉換됨으로서 東獨의 林業政策, 行政, 經營 및 所有構造등이 西獨體制로 흡수되거나 改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말은 東獨의 計劃經濟的인 林業이 市場經濟的인 林業으로의 變化를 뜻한다.

우리 韓國國民들이 獨逸統一의 展開過程을 예의 注視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여기 東獨의 林業現況을 살펴보고 나아가 林業이 어떻게 統合되어 가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2. 東獨의 山林과 林業

東獨의 國土面積은 1,080만 ha이며 이중 山林面積은 290만 ha로 全國土의 약27%이다. 이 山林面積은 지난 200여년간 거의 변화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山林面積은 0.18ha로 西獨의 0.13ha보다 높은 편이다(表 1).

表 1. 東獨의 林業現況(西獨과 比較)

區 分	東 獨	西 獨
國土面積	1,080만 ha	2,485만 ha

區 分	東 獨	西 獨
山林面積	290만 ha	775만 ha
山林面積比率	27%	31%
1人當山林面積	0.18ha	0.13ha
ha當林木蓄積	195 m ³	298 m ³
年間伐採量 / ha	4.2 m ³	5.8 m ³
林木伐採量 ('70년以後)	50% 상승	變化없음
林地生産力	약간不利	약간有利
활엽수比率	25%	33%
100년以上林木	전체의 9%	18%
山林經營	粗防的	集約的
休養施設費用과 山林保護	總經營費의 2%	10%
林業收益 / ha	4 마르크	-30~40 마르크

樹種은 침엽수 75%, 활엽수가 25%를 점하고 있는데, 만약 지난 200~300년간 林業經營을 하지 않았더라면(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았더라면) 自然的인 與件으로 봐 90%가 활엽수일 것이다. 혼효림은 약20%로 서독의 67%에 비해 매우 낮다.

전체 山林의 약 76%가 喬林으로서 經濟的으로 利用되고 있으며, 나머지 24%는 保安林과 保存林 등으로 利用에 制限이 加해 지고 있다.

林木蓄積은 1989년에 ha당 195 m³로 西獨의 298 m³에 비해 낮은 량이지만 '50년대 初 110 m³ 보다는 많이 높아졌다. (西獨의

298m³/ha는 1990년 6월 獨逸政府의 公式發表임)

林相을 보면 소나무는 유령림이 많고, 너도밤나무는 장령림이 많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유령림비율이 너무 높은 편이다.

따라서 目標한 林木蓄積 250m³/ha 까지 끌어 올리기까지는 많은 時間과 勞力이 必要할 것이다.

輪伐期는 소나무 110년, 독일가문비 100년 그리고 너도밤나무와 참나무가 140년으로 비교적 長伐期 政策을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獨의 木材消費는 1989년도에 18백만 m³인데, 이는 1인당 약 1m³에 해당된다. 原木生産量은 10.5백만 m³, 廢材와 廢紙利用이 2.5백만 m³며 나머지 5백만 m³는 주로 소련에서 輸入하고 있다.

3. 山林所有構造

山林의 所有形態는 人民材, 軍有林 그리고 組合·私有林의 3가지로 分類된다.

1) 人民林 : 186만 ha(64%)로 1949년 土地改革前의 國有林, 地方自治 團體林 그리고 土地改革當時 組合林과 私有林 一部가 人民林으로 編入되었다.

2) 軍有林 : 20만 ha(7%)로 軍有林역시 人民林의 성격을 띠지만 東獨 建軍과 함께 國防部에 넘겨져 國防部 自體的으로 山林經營 機構를 가지고 經營·管理하고 있으며 軍士訓練場으로 쓰이는 山林

3) 組合·私有林 : 총 86만 ha(29%)인데 이중에서 73만 ha는 農業生産

組合에, 9만 ha는 個人에게, 나머지 4만 ha는 教會나 法人 體에 속하는 山林.

山林의 經營·管理는 農林部의 “國有林 經營署”(Staatliche Forstwirtschaftsbetriebe)에서 擔當하고 있는데, 전체 山林의 91%가 여기에 속해 있다.

國有林經營署는 人民林의 經營이외에 組合·私有林의 86%를 契約에 의하여 經營·管理하고, 나머지 一部 山林만 農業生産 組合과 山主 스스로 經營하고 있다.

林業에서 保續經營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市場經濟原理를 도외시하고 國家統制下에서 目標伐採量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였기 때문에 過伐(특히 독일가문비)이 盛行하게 되어 保續經營이 어려운 狀態이다.

즉 計劃經濟下에서 東獨의 林業은 다른 産業分野와 마찬가지로 市場經濟體制를 표방하고 있는 西獨에 비해 많은 問題點들을 內包하고 있으며 落後되어 있다.

4. 山林行政組織

山林行政의 最上級機關으로는 農林部에 山林局이 있고, 傘下에 15개의 地方營林局이 있으며, 그 밑에 公社形態의 國有林經營署(Staatliche Forstwirtschaftsbetriebe)가 全國에 77개가 存在하는데, 經營署당 平均 30,000ha를 經營·管理한다. 이 밑에 平均 6,500ha를 經營하는 管理所(Oberforsterei)(西獨의 營林署와 같음)가 있고, 밑에 出張所(Forstrevier)가 있는데 平均 管理面積은 1,200ha이다. 管理所長은 政規 大學 林學科 出身으로, 出張所 主任은 林業技術學校(初級大學) 出身으로 補하고 있다.

5. 統一後의 東獨林業

1) 國民經濟的인 林業

앞으로의 東獨林業은 中央統制林業政策에서 벗어나 西獨에서처럼 各地域 與件에 맞도록 山林의 利用, 保護, 休養機能이 最大한 발휘되도록 經營되어야 할 것이다. 統獨에 따라 1984년 7월24일 公表된 東獨山林法은 自然히 消滅되고, 東獨에 新設되는 5個州에서는 西獨의 聯邦山林法이 規程한 데두리 안에서 새로운 州山林法을 만들어 施行해야 하며, 林業도 이 법에 따라 經營되어야 한다.

2) 所有構造

所有構造問題도 東獨山林法이 消滅, 西獨山林法에 吸收됨에 따라 西獨 基本法 第14條의 “所有에 관한 規程”에 의거 確立될것인데, 다음 4가지 所有構造가 당분간 唯持 될 것이다.

가. 國有林: 人民林은 國有林으로 되어 州政府所管이 된다. 지금까지의 軍有林은 聯邦林, 즉 國有林에 編入 될 것이다.

나. 公有林: 地方自治團體와 法人은 1949년 土地改革當時 收用당했던 山林을 되돌려 받게 되며, 이 山林은 協業體를 組織하여 共同으로 經營하거나 國有林 營林署에 委託經營을 하게 될 것이다. 이 範疇에 들어갈 山林面積은 全體林野의 약 10%이다.

다. 私有林: 農業生産組合에 속한 山林은 所有權이 다시 復活되어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組合과 개개 山主가 經營에서 自由스러운 決定權을 行사하여야 하는데 所有權問題中 私有林問題解決이 가장 複雜할 것으로 豫想된다.

라. 土地改革으로 생겨난 私有林: 이 範疇에 든 私有林은 獨逸國會에서 새로운 立法을 할 때까지는 現在대로 所有權이 認定될 것으로 보인다.

3) 山林行政組織의 再整備

東獨地域의 國有林經營을 위한 山林行政組織은 西獨의 制度에 따라 山林行政體制를 3段階로 改編할 豫定이다. 이것은 南部 獨逸의 소위 “單一營林署”制度로써 州農林部に 山林局, 地方營林局, 營林署의 3段階를 뜻한다.

州政府는 “營林計劃署”를 新設하여 여기서 營林計劃, 土壤·植生調查, 山林被害調查, 山林基本計劃樹立 그리고 이와 類似한 業務를 擔當토록 할 計劃이다. 그러나 林業試驗場의 改編問題는 아직 未決로 남아 있다.

4) 林業(學) 教育의 統合

自由스러운 競爭을 통하여 職業을 選擇하기 위하여는 兩獨間 林業分野의 教育制度가 같아져야 함은 當然하다. 이 條件이 充足되기 위해서는 現 西獨의 制度대로 改編되어야 하는데 즉,

1. 東獨의 林業技術學校는 林業專門大學으로 改編되어야 하며,

2. 正規大學 林學科 出身을 위한 國家考試와 2年間의 試補制度의 施行이다.

林業教育을 위한 教育制度의 統合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統獨 後에는 現在 東獨 드레스덴에 있는 타란트 大學校 林業大學과 西獨의 3개 林業大學 등 도합 4개의 林業大學이 獨逸에 存在하게 된다.

★